롯데건설, UN 행사에서 <바이오시멘트> 포럼

롯데건설은 10월1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<UN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>에서 국내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<탄산칼슘 형성 미생물 이용 사막화 방지 기술>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월17일 발표했다.

롯데건설은 포럼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존 시멘트와 달리 친환경적이면서 강도는 충분히 강한 <바이오시멘트>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

바이오시멘트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황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UN 사막화 방지 협약은 기상이변과 산림 황폐화 등으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0/17>